



대학교육이념의 변화와 대학평가의 새로운 기준

목 영 해 | 신라대학교 사범대학장

I.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 성균관은 500여 년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1911년 학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성균관의 폐교는 조선 왕조의 몰락이라는 정치적 이유가 주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성균관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시대가 근대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균관은 여전히 중세기적인 보수적 유학교육에 집착하였던 것이다. 반면 실용적인 산업 기술의 연구·보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설립된 미국의 MIT는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되었다.

이와 같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학 이념과 그에 따른 학사 운영을 개혁하여 온 대학은 발전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대학은 쇠퇴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대학의 이념과 실제적 운영은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하여야 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 변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현대의 사회는 대학의 이념과 실제에 또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근세 사회

에서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변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변화'라는 과도기적 변화기에 있는 현재의 지구촌은 새로운 대학이념과 그에 따른 학사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선례를 볼 때, 이러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대학은 발전할 것인 반면 이 변화를 외면하는 대학은 쇠퇴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될 대학교육이념을 고찰하고, 이념 변화에 따라 대두하게 될 새로운 대학평가 기준과 그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근대적 대학교육 이념

이성적 합리성, 개체적 자아정체성, 주체적 자율성은 근세적 세계관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이러한 근대적 세계관의 특성은 현재의 기존 대학관 및 학사 전개에 그대로 반영된다. 설령근대, 개체적 자아정체성 및 주체적 자율성의 강조는 교수와 학생의 연구활동 및 교육활동의 독립적 자율성 강조로 이어진다. 교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가운데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의 연구 및 교수할

“

21세기 현대의 사회는 대학의 이념과 실제에 또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근세 사회에서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변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변화' 라는
과도기적 변화기에 있는 현재의 지구촌은 새로운 대학이념과
그에 따른 학사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등의 자율성은 각 학과의 자율성으로 이어져 각 학과는 학문적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여타 학과와 학문적 교류를 거부하며, 대학간에도 독립적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학문적 교류를 가능한 삼가한다.

또한 이성적 합리성이라는 근대세계의 특징은 연구와 교육활동의 합리성 강조로 이어진다. 대학에서 연구와 교수활동은 이성활동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연구방식의 전형은 과학적인 방법이므로 대학에서의 연구는 과학적이어야 한다. 과학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만이 보편 타당한 진리를 도출할 수 있으며, 보편 타당한 진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 진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 자체도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크고 웅대한 주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학은 '진보', '해방' 과 같이 크고 웅대한 주제에 관한 거대 담론을 연구 생산하는 반면, 지역적이고 국지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작고 왜소한 주제에 관한 담론은 기피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성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근대적 사고는 결국에 대학이란 이성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거대 담론을 연구 생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라는 견해로 이어지며, 거대 담론 생성의 중심이 되는 철학, 역사, 문학, 법학을 다루는 학과가 대학조직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거대 담론은 개인의 선호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보편적인 것이기에 이 거대 담론을 생산하고 접하는 대학의 이념, 조직, 기능은 어느 대학이나 동일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대학은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여러 학과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에서 대학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에 근대사회에 있어서 대학에 대한 평가는 근대적 대학교육관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근대사회의 대학평가 기준은 '거대 담론의 생성정도는 어떠한가?', '거대 담론을 생성할 수 있는 교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 그리고 '거대 담론 생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서관, 실험실 등의 물적 자원과 지원 보조인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거대 담론을 생성할 능력이 있는 교수가 많고, 그것을 생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충실하게 갖추어 질수록, 그래서 거대 담론을 많이 생성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대학일수록 그 대학은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었다.

Ⅲ.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대학교육 이념의 등장

1. 21세기 사회의 변화

20세기 후반부터 지구촌 사회는 큰 변화에 접어들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변화, 국지적 사회에서 세계화 사회로의 변화, 근세사회에서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변화가 인간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상호 연계되어 있고, 서로 중첩되어 있기조차도 한 이 변화는 근대적 대학교육이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1) 포스트모던화

포스트모던화는 이데올로기 중심 사회에서 탈이데올로기 중심 사회로, 생산 중심 사회에서 소비 중심의 사회로, 인쇄 매체 중심 사회에서 영상 중심 사회로 이행하면서 일어나는 생활양식 변화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설명컨대 20세기 후반기 이래 지구촌 사회는 이데올로기 중심 사회에서 탈이데올로기적 문화 중심의 사회로 바뀌었다. 이데올로기 대립구도 속에서는 진보, 해방, 역사와 같이 크고 웅대한 주제의 담론만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대신 인간의 실제 삶과 관련이 많은 작은 주제의 담론은 무시되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 대립구도가 붕괴된 이후 거대 담론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대신 정작 거론하고 싶었지만 거대 담론에 가리어 논의할 수 없었던 작은 주제들, 예컨대 여성, 환경, 레저, 건강, 패션, 성 등에 관련된 담론들이 널리 거론되고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또한 20세기 후반 지구촌 사회는 다국적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상품의 생산보다는 상품의 유통과 판매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일인 근면, 성실, 절

약, 저축만이 덕목이었지만, 이제는 소비 및 소비와 관련된 유행, 패션, 축제 등도 덕목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생산사회에서 소비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대인은 책이나 신문으로 대표되는 활자 인쇄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교양을 쌓기보다는, TV나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영상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교양을 쌓는다. 인쇄 매체 중심 사회에서 영상 매체 중심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화 중심의 사회, 소비 중심의 사회, 영상 매체 중심의 사회의 문화논리이자 생활양식이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감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과거 근대사회의 모더니즘이 이성을 과잉 강조하였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영상매체의 인식, 소비의 활성화, 문화적 담론의 생성과 연계되어 있는 감성적 직관을 강조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또다른 특징은 상대론적 다원성이다. 근대사회의 문화적 정전(正典), 다시 말해 고급문화는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성, 가치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과 보편성을 거부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 아래에서 이성과 보편성에 근거를 둔 문화적 정전은 해체되고 대신 인간 감성의 서로 다름에 근거를 둔 다양성이 강조된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다양한 관점, 다양한 진리 해석, 다양한 생활양식이 인정 존중되는 것이다.

2) 정보화

정보화는 정보처리 방식이 아날로그식에서 디지털식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식 정보처리는 아날로그식에 비하여 정보의 처리성, 저장성, 이동성, 호환성이 매우 뛰어나 정보의 대량 생

산, 소통, 소비가 가능해지며, 그 결과 인간사회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물질적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소유하고 소비하는 일 중심의 사회가 정보를 대량으로 생산, 유통, 소비하는 것으로 바뀌는 현상이 정보화인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식 정보처리는 단순한 사회 문화 체제의 변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세계관, 지식관, 자아관까지도 바꾸어 놓는다. 설명컨대 광역통신망(WAN)에 연결이 안 된 컴퓨터는 별로 쓸모가 없지만, 통신망에 접속된 컴퓨터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듯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는 원자적 개체성보다는 네트워크적 연계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정보는 네트워크적 통신망을 타고 정치함이 없이 흐르면서 사용되고, 새로운 버전의 것으로 상승할 때 그 가치는 올라간다. 수확체감의 법칙이 아닌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중심 정보원은 인쇄텍스트가 아닌 하이퍼텍스트이다. 형식도 내용도 고정 완결된 형태인 인쇄텍스트에 비하여 하이퍼텍스트는 고정된 형식과 내용이 없이 언제나 구성과정 중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정보화에는 고정적 결과성보다는 구성적 과정성이 중요하다.

3) 세계화

교통수단의 발달은 물리적 거리감을 줄여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간, 국가간, 문화권간의 이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더 나아가 정보통신공학의 발달은 국가간, 문화권간의 경계를 허물고 물리적 거리마저도 무력화하여 인터넷이나 위성방송을 통하여 서로 다른 문화가 제한 없이 교류될 수 있게 하였다. 지구촌에서 일어난 그 어떠한 일이라도 실시간에 그에 대한 정보를 안방에서 편하게 얻을

수 있으며, 타 문화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안방에서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중세기의 종교기관, 근대의 국가에 이어 현대 사회에서 주도적인 사회기관으로 대두한 기업들은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만 그 기업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초국가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소위 다국적 기업활동이 그것이며, WTO협약은 다국적 기업활동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간, 문화권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장애물이 제거되어,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그러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안목 및 기준이 국지적(local) 수준을 넘어서 세계적 차원의 것일 필요가 있다. 국지적 안목보다 세계적 안목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국지적 차원을 뛰어넘는 세계적 안목과 기준을 가지고 타 국가 및 타 문화권의 사람과 물건 그리고 문화를 접하여 즐기고, 수용하고, 변용하며, 타 국가 및 문화권의 사람들과 연대하고 대화하며 상호 경쟁하는 현상이 세계화이다. 이와 같은 세계화 현상이 21세기에는 사회의 일반적 현상이 되는 것이다.

2. 새로운 대학교육이념의 등장

포스트모던화로 총칭할 수 있는 20세기 후반기 이후의 사회변화는 기존 대학의 교육이념, 조직,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포스트모던화, 정보화, 세계화는 고정적 불변성을 넘어서 구성적 과정성을 대학교육의 중요한 지표로 할 것을 요구한다. 부연컨대, 근대식 대학의 교수와 학생은 고정된 불변의 자아, 다시 말해 주체적, 이성적 자아를 가질 것을 요구받는

다. 불변의 진리 탐구와 이를 통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자아 확립이 근대적 대학교육의 요체인 것이다. 그러나 구성적 과정성을 중요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및 정보화의 맥락에서 보면, 근대 대학이 추구하던 고정 불변의 진리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자아는 있을 수도 없고 무의미하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를 반영하듯이 진리와 학문에 관한 최근의 여러 담론들을 보면, 현대 학문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대주의의 입장과 정서주의 입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목영해, 1998).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닌 상대적이고 정서적인 인식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아관에 있어서도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주체적 자아가 그 전형이 되는 고정 유일의 자아보다는 다원적 자아, 유연한 자아, 네트워크 자아가 강조되고 있다(목영해, 2001 : 82~85).

따라서 보편타당한 진리 탐구와 그것의 전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대학의 여러 활동과 조직은 구성적 과정성에 입각하여 상대적이고 정서적인 인식 및 유연한 다원적 자아 확립 중심의 대학 활동으로 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던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대학은 객관적 지식체를 학생들에게 전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게 하며, 정형화된 이성적 자아관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학생이 능동적 자아를 구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대학은 보편적인 진리관 및 이성적 자아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성 중심주의, 문자 중심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능동적인 구성적 인식에는 이성적 사고력에 못지 않게, 때로 그것보다 더 큰 창의적인 상상력과 실험정신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창의적 상상력과 실험정신에 입각하여 구성된 지식의 표현과 전달에는 문자 및 문자 중심의 인쇄 매체로는 부적절하다. 그 표현과 전달에는 문자가 아닌 영상, 인쇄 매체가 아닌

영상적 디지털 매체가 적절하다. 포스트모던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안다',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더 이상 '이성적 사유의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포스트모던화, 정보화 시대에서 '안다'는 것은 창의적으로 존재 의미를 구성할 수 있고, 그것을 영상 중심의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목영해, 2001 : 226).

따라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대학은 교수와 학생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중요시하여야 하고, 창의적 상상력 개발 및 그것의 발현 기회 제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정하여야 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모던화는 거대 담론 중심의 기존 대학의 변화 또한 요구한다. 일상생활인의 진정한 관심사인 환경, 레저, 패션, 건강, 성 등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한 소담론의 연구 생성에 임하고, 학생에게 이 같은 소담론적 문화활동의 체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현 시대와 사회는 대학에 요구하는 것이다. 대학기능의 중심이 고차원의 학술적 지식이라 불리는 거대 담론 생성, 보급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의 체험과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담론의 생성 센터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줄 수 있는 문화적 체험 기회는 여타 사회기관이 제공하여 주지 못하는 것일수록 바람직하며, 이러한 문화적 체험 기회는 대표적 예로는 국제적 문화활동이 있을 수 있다. 대학이 소담론적 문화활동 중심으로 조직 운영된다면, 대학교육이 중요시하여야 할 학생들의 능력은 감성적 직관력, 창의적 상상력이다. 소담론적 문화활동에는 창의적 상상력, 감성적 직관력이 필요하며, 특히 문자 매체보다는 영상 매체가 주정보원이 되는 디지털식 영상 매체

시대에서 창의적 상상력과 감성적 직관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최근 다수의 대학 재학생들은 대학 생활에서 학술적 지식의 습득보다는 다양한 문화적 체험활동에 더 관심이 많고, 사회 또한 지적 지능(IQ)보다는 감성 지능(EQ)이 뛰어난 학생에게 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기업 또한 다양한 문화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길러진 창의적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호하고 있다.

아울러 포스트모던화는 원자적 개체의 자율성,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기존 대학을 네트워크적 연계성을 토대로 한 것에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포스트모던화 아래에서는 그 어느 것도 연계적 관계망을 벗어나 원자적 개체일 수 없으며, 이 점은 대학도, 교수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교수들은 자율이라는 이름의 폐쇄적 배타성을 버리고 학제적 입장에서 연구하고 수업에 임하여야 한다. 학제적 공동 연구나 팀 티칭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전공영역과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학과간의 경계를 허물어 연계 전공 개설이나 학부제를 활성화하며, 대학간에도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프로그램의 공동 개설 및 상호 인정 등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대 사조는 여타 사회조직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며, 특히 21세기 사회조직 기능의 중심이 될 기업과의 적극적인 상호연계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대학은 기업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기업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연구하고, 교과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성적 진리 중심주의 넘어서기는 대학의 직업교육관의 변화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고정불변의 진리 및 자아관은 고정된 직업관으로 이어진

다. 근대사회에서는 한번의 직업 및 직장은 영원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주도적이었으며, 대학 또한 평생직장관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진리 및 자아가 다원적이듯 직장 또한 가변적이고 다원적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사람들은 가변적인 직업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적 유연성(job flexibility)을 가져야 한다. 이에 최근에는 직업적 유연성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강조하는 신직업주의(new vocationalism) 교육이념이 등장하였다. 신직업교육이념에 의하면, 최근의 직업환경은 직업적 유연성을 위한 교육을 요구하므로 학습자에게 유효기간이 짧은 단순한 기능 전달을 넘어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Secretary'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1991)는 유능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3R이 포함된 기초능력, 사고기능, 인간적 자질 이외의 자원(resource) 영역, 대인관계 기능 영역, 정보 영역, 시스템 영역 그리고 기술공학 영역에서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므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 능력들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던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대학은 학생으로 하여금 불변적 직업관 및 직업능력을 넘어서, 자기학습능력과 창의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직업적 유연성을 갖게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대학평가기준의 대두

새로운 대학교육관의 등장은 대학평가기준 또한 변경시킬 것이 분명하다. 사회와 교육관이 변하면 대학의 평가기준도 변한다는 역사적 전례와 같이 새로운 대학평가기준이 등장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의 변화가 대학에 요구하는 바를 근거로 판단컨대, 대학평가의 새로운 기준 그 첫 번째

는 학생의 창의적 상상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과 의 구비 정도이다. 이성적 보편성이 근대사회를 대표하는 개념이라면 감성적 상상력은 포스트모던 사회로 통칭될 미래사회를 대표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학생의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상상력 개발에 비중을 두어야 하며, 이것은 대학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흔히 감성적 상상력이라고 하면 예술교육을 생각할 것이나, 창의적 상상력은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에서도 필요하다. 인문학적 상상력이나 과학적 상상력에서 과학적 발견이나 문화 콘텐츠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므로 조만간 창의적 상상력이 풍부한 인력일수록 기업이 오히려 선호하게 된다. 학생들의 감성적 상상력 및 창의력을 개발해 주는 강의가 많은 대학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학이 가진 연계성의 정도이다. 개체적 독립성보다 네트워크적 연계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세계관 아래에서는 다양한 접속 통로를 가지어 네트워크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이 관계에 익숙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대학일수록 우수한 대학이 된다. 학내적으로는 연계 전공 설치, 학제적 연구, 팀 티칭과 같은 학과간, 전공간 연계성이 높은 대학일수록, 학외적으로는 기업을 비롯한 여타 사회조직과의 연계성, 타 대학 및 연구집단과의 연계성, 특히 해외 대학, 사회 기관, 연구집단과의 범지구적 연계성을 많이 가질수록 해당 대학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세 번째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공식 교과의 형태 또는 비교과의 형태를 불문하고, 대학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할수록 그 대학에 대한 평가는 높아진다. 세계의 오지문화 탐방, 로봇 제작, 봉사활동, 단편영화제작 등 혼자서 아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문화 활동 프로

그램은 과거의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창의적 상상력, 감성적 직관력, 그리고 협동성 등을 길러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고, 기업 또한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대학에 대한 평가는 높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이 문화적 프로그램이 세계화되고 디지털 정보화된 것일수록 대학에 대한 평가는 더욱 높아진다.

네 번째는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이다. 경제구조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대인들은 양질의 서비스에 익숙해지며, 따라서 학생들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정보획득만이 대학진학의 목적이라면 학생들은 사이버 대학에 등록하면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과 인간적 교류를 맺을 수 있는 교수가 많은 대학, 그리고 직원들의 서비스가 뛰어난 대학,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상담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그리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상과 같은 대학평가기준의 변화를 요약하자면 지성적 사색 중심에서 감성적 체험 중심으로의 변화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같은 대학평가의 새로운 기준들이 대학평가의 주류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대학평가에서 전통적 평가 기준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화, 포스트모던화,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전통적 평가기준의 비중은 적어지는 대신 새로운 평가기준의 비중은 커질 것이며, 정보화, 포스트모던화, 세계화의 빠른 진행속도를 감안컨대 새 평가기준과 기존 평가기준의 상대적 비중의 역전 현상은 10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IV. 맺는 말

포스트모던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사회변화는

“

대학들은 대두하고 있는 새로운 대학교육이념 및 대학평가기준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운영 방침 및
학사 그리고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변화해 가야 한다.

”

대학교육의 이념, 조직, 기능 변화를 요구한다. 이성적 사고력에 근거한 거대 담론 중심의 근대적 대학교육의 이념, 조직, 기능은 새로운 시대 사회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들은 대두하고 있는 새로운 대학교육이념 및 대학평가기준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운영 방침 및 학사 그리고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변화해 가야 한다. 특히 이러한 준비 및 변화는 현재의 대학간 경쟁에서 뒤져 있는 지방 군소 사립 대학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 군소 사립 대학은 지성적 사색 중심의 경쟁에서 패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성적 사색 중심의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경쟁에 뒤져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들은 대두하고 있는 새로운 대학이념 및 대학평가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대학교육을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 대학교육이념의 변화 및 새로운 대학평가기준의 대두는 과거의 기준에 입각한 경쟁에서 뒤진 대학에게는 대학 도약의 새로운 그리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새로운 이념 및 기준을 따르기 위한 대학교육 변화의 시작은 강의 내용과 방식을 지성적 사고력 개발 중심에서 창의적 상상력 개발 중심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컨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평가를 “이데아에 대해 논하시오”가 아닌 “이데아에 대해 그리시오” 혹은 “그래픽 디자인 하시오”라는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다. 대학
교육

참고문헌

- 목영해(1998). 『현대 상대주의 철학과 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 목영해(2001). 『디지털 문화와 교육』. 서울 : 문음사.
- 한국교육개발원(1998). 21세기 고등교육 변화와 전망.
- Secretary'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1991). *What Work requires of Schools*.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Labor.

목영해

부산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신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Visiting Fellow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신라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디지털 문화와 교육』, 『포스트모더니즘과 교육적 인간상』 외 다수가 있다.